

호르무즈 충돌 재개...헬기 추락 불씨로 美-이란 맞불

트럼프, 아파치 추락 "이란이 격추"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10일(현지 시간) 미군의 아파치 헬기 추락을 불씨로 보복에 재보복을 주고받으면서 무력 충돌을 재개했다.

미 CNN방송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이날 텔레그램 채널에서 역대 미국 목표물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미군이 자국 육군 소속 아파치 헬기 추락에 대응해 이란에 보복 공습을 감행하자 이란도 즉시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직전 아바스 아라크치 이란 외무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서 미군의 보복 공격에 대해 "어떠한 공격도 반드시 응징하겠다"며 재보복을 경고했다.

그는 "미국은 전장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결의를 시험해보려고 했다"며 "안전을 원한다면 우리 지역에서 떠나라. 페르시아만 역사에는 침입 외세들이 처한 비참한 운명에 관한 수많은 기록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미군은 지난 8일 추락한 아파치 헬기가 이란군에 격추됐다고 주장하며 이날 이란 호르무즈 해협 곳곳에서 자위권 차원의 타격을

가했다.

CNN 방송에 따르면 이란 반관영 매체르 통신은 이란 남부 해안 도시 시리크,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반다르아바스와 계슌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다.

메흐르 통신은 남부 마나브 지역 당국자를 인용해 내륙 도시에서는 공격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호르무즈 해협과 접한 해안지역에서 폭발음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중부사령부가 공습을 개시한 시점에 미 ABC 방송 기자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으며, 당시 기자에게 "난 대응은 매우 강력하고 힘 있게 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번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미 육군 소속 아파치 헬기는 전날 밤 호르무즈 해협 상공을 순찰하던 중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고 격추됐다. 조종사 2명은 무사히 기출됐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은 불가피하게 이 공격에 대응해야만 한다"고 말해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연합뉴스



NASA 아르테미스 3호 승무원 발표 9일(현지시간)왼쪽부터 우주비행사 앙드레 더글러스가 아르테미스 3호 승무원 공개 행사에서 아르테미스 2호 조종사 빅터 글로버의 환영을 받고 있다. NASA는 2027년으로 예정된 아르테미스 3호 임무에 랜디 브레스닉, 이탈리아와 유럽우주국(ESA) 소속의 루카 파르미타노, 프랭크 루비오, 그리고 앙드레 더글러스를 선발했다. 아르테미스 3호 임무는 자체도에 머물며 우주선 도킹 기술을 시연할 예정이다. 2028년으로 계획된 아르테미스 4호 임무는 아폴로 17호 이후 처음으로 인간을 달 표면에 다시 착륙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AFP=연합뉴스

"시진핑 방북 계기 북한 단체관광 재개 가능성"

SCMP "北 주요 관심사는 경제 중 발전모델 채택 가능성 신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중국인들의 북한 단체관광이 6년 만에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9일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시 주석 방북 이후 북중 간 문화·경제 교류가 한층 확대될 수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국의 북중관계 전문가는 SCMP에 "북한의 안보가 대체로 안정되면서 이제 주요 관심사가 경제 발전으로 옮겨갔고, 이를 위해서는 중국과의 관계 강화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교류 활성화의 시대가 열리면서 북한이 중국 관광객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2020년 1월 코로나19 확산 직후 국경을 봉쇄하면서 중국인 관광객 유입도 전면 중단된 바 있다.

지난해 초 나선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일부 외국인 관광 허용을 시도하다가 한달도 되지 않아 이를 다시 제한하는 등 본격적인 관광 재개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중국인 단체관광이 이번에 전면 재개된다면 6년 만에 정상화되는 것이다. 북한은 2024년 러시아 관광객들에게만 선택적으로 다시 관광을 허용한 상태다.

중국인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만 해도 한해에만 수십만명씩 북한을 찾는 현지 관광 시장의 최대 고객이었던 만큼, 북한은 단체관광 재개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노릴 수 있다는 설 명이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장관)이 시 주석의 이번 방북 대표단에 포함된 것 역시 북중 경제 협력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이 전문가는 관측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북한이 중국의 경제 발전 모델을 채택할 가능성도 열어주는 신호"라며 "완전히 개방적이기 어려운 북한이 특정 분야나 일정 범위 내에서 중국의 경험과 관행을 배우는 것을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의 윌리엄 양 동북아시아 담당 선임 분석가는 시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통해 국제 정치의 양극단에 있는 국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강대국 지도자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었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AI 전력수요 ↑...日미쓰비시, 발전용 가스터빈 생산 2배

2030년까지 생산능력 확충

수주 잔고 폭증하자 증산 결정

대형 가스터빈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인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인공지능(AI) 보급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해 화력 발전용 가스터빈 생산 능력을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10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2030년까지 가스터빈 생산 능력을 2024

년 대비 2배로 확대할 방침이다.

AI 확산으로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 센터 건설이 잇따르면서 가스터빈 주문이 폭주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자 생산 체제 강화에 나선 것이다.

미쓰비시 측은 동일 규격 제품을 묶어 생산하는 방식으로 공정을 줄여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연소기 등 핵심 부품 시설도 증설하되, 향후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설비

투자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당초 미쓰비시중공업은 2028년까지 생산 능력을 2024년 대비 30% 늘릴 계획이었으나 시장 성장이 빨라 목표를 대폭 상향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2025년도에 35대를 수주했으나, 수주 잔고가 전년 말보다 50% 급증한 74대에 달해 증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 GE 버노바, 독일 지멘스 에너지 등 글로벌 경쟁사들도 생산 확대를 추진 중이어서 주도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대만, AI 칩 중국 수출 전면 통제 검토"

대만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 일환으로 중국에 대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통제를 전면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당국은 수출 블랙리스트에 오른 화웨이 등 특정 기업뿐 아니라 중국 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AI 칩 판매를 제한하는 강력한 수출 통제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새 조치가 시행되면 대만이 중국으로의 AI

칩 밀수를 처음으로 형사 위반으로 기소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라이칭더(賴清德) 정부 출범 이후 대만의 기술 안보 및 국가 이익 수호를 위한 가장 광범위한 조치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특히 엔비디아 칩 프로세서를 서버에 조립하는 대만 업체들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

앞서 대만 당국은 지난달 반도체 밀수 용의자를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은 미국의 접근 방식을 따라 일정 성능을

넘는 AI 칩에 대한 대중(對中) 판매를 제한하는 방향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특정 성능 기준을 초과하는 칩의 중국 판매를 차단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대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기준은 양국 고위 당국자의 최종 검토와 승인을 앞두고 있어 세부 조율이 남아 있는 상태다.

대만 경제부는 국제 수출 통제 기준에 맞춰 '전략적 첨단 기술 제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 통제 아래 첨단 칩을 포함하는 사안과 같은 이슈들과 관련해 대만과 미국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철거 전문가
광주·전남 전지역 가능

- ✓ 철거 경력 20년!
- ✓ 광주·전남 전 지역 출장 가능
- ✓ 상가, 주택, 간판, 내부 철거 등
- ✓ 당일 견적 OK / 소규모 철거도 가능
- ✓ 안전·정리+깔끔함까지 책임집니다.

현주 제로레벨 ☎ 상담전화 010.9842.5570